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화성에 무인 탐사선이 도착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TV 뉴스로 지켜보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들은 끝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에 대한 물음을 추적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 근원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비단 종교와 과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틀리 스콧 감독의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근원에 대한 물음을 영상화시킨 작품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자꾸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궁금해하고, 이것은 단지 과학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까지 점점 확장되어 간다. 리틀리 스콧 감독은 영화를 배우 중심으로 끌고

갑자기 불려오는 허탈함과 풀어지는 긴장 사이에서 갑자기 익숙한 피아노의 선율이 흐른다. 쇼팽의 전주곡 제15번, '빗방울'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기도 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4분의 4박자로 흘러 나오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그리고 쇼팽의 음악은 '빗방울'이라는 부제에서 벗어나 우주의 멜로디처럼 들린다.

원래 전주곡(Prelude)이란 모음곡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푸가 앞에 붙는 짝막한 도입곡으로 사용되는 곡을 칭한다. 하지만 쇼팽의 전주곡은 이런 용도가 아닌 독립적인 음악으로 작곡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쇼팽처럼 독립적인 의미로서의 전주곡 모임을 발표했다. 영화에 사

영화 '프로메테우스' 중 쇼팽 '빗방울 전주곡'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가기보다 근본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물고간다. 그리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자신들의 근원이 궁금한 관객들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감독의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지루한 듯한 서스펜스를 느낀다.

이렇게 큰 물음에 대한 영화의 대답은 늘 그렇듯 허무하며 오묘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화면이 암전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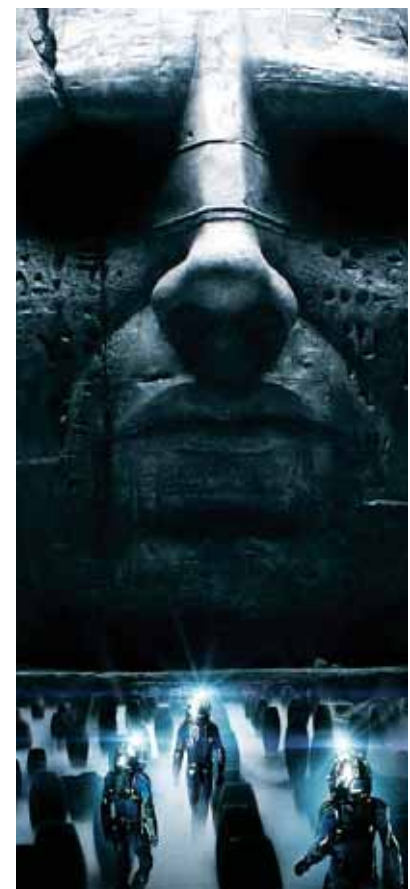
울린 곡은 24곡의 전주곡 가운데 15번 곡으로 왼손이 연주하는 반복적인 리듬과 멜로디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흡사하다하여 부제가 붙어있기도 한 아름다운 곡이다.

쇼팽의 전주곡은 피아니스트들의 필수 레퍼토리인 만큼 수많은 연주자들이 녹음을 남겨놓았다. 그 가운데 가장 정평이 나있는 현대 연주는 바로 마우리치오 풀리니의 녹음이다. 완벽한 기교, 악보에 대한 냉철한 분석, 리듬과 악구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통찰하는 풀리니의 해석과 연주는 전무후무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풀리니의 연주보다 어쩐지 손이 더 많이 가는 연주는 피아노의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유고슬라비아 출신 피아니스트 이보 포고렐리치의 녹음이다. 특히 15번 빗방울 전주곡의 연주는 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해석을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느린 템포, 마치 글렌 굴드의 바흐 연주를 듣는 듯한 절묘한 스타카토의 활용, 단지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키 어려운 아름다운 곡의 긴장감이 서려있는 포고렐리치의 연주는 쇼팽의 음악이 정말 우주의 음악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

생각의 끝을 알 수 없는 이 괴짜 피아니스트는 인류의 기원이 '어쩌면 떨어지는 빗방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라고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리스트〉



인도의상 '사리'도 입어보고, 인도 요가도 배워보고 '웃음꽃 만발'

세계 여러나라 문화체험 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인도 혼혈 소녀 민지의 생일. 민지의 생일에 초대된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에크! 도! 띤!'(인도어로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날카로운 편을 단지는 종신 터트리기 놀이가 시작됐다. 종신이 터지자 속에서는 '인도의 화장실', '사리', '요가' 등 다양한 단어가 적힌 종이 나왔다.

지난 24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진행된 '아시아문화체험극-인도편'에 참가한 아이들은 종신 속에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길로 체험극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놀이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가 어린이들은 쉽게 빠져들었다.

'아시아문화체험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7~9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의 알리미가 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각국의 전통놀이와 체험극을 결합한 교육 연극형식으로 나라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도록 했다.

굿모닝 유치원 어린이 20여명이 참여한 첫날 프로그램은 인도의 이모저모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인도의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어요. 과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을 이용하고, 음, 뒤를 닦을 때는 왼손을 이용합니다."

"와~ 너무 더러워요. 왜 화장지를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인도의 교통수단인 리카사라고 해요. 택시하고 오토바이가 수레를 끌고 가죠."

인도 의상을 가리키는 '사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붉은색과 푸른색 사리를 직접 입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체험극-인도편'에 참가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또문화도시추진단 '문화체험극' 내달 14일까지 진행

전통놀이에 체험극 결합, 7~9세 어린이 직접 참여

보고, 요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동글게 모여 '나무 자세' 등을 직접 배워보기도 했다.

굿모닝 유치원 문소영 교사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모저모를 배우다 보니 신기한 게 많아서인지 더 잘 빠져들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며 "특히 지금 유치원에서 세계 여러나라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이 더 의미가 있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사리'를 입어보는 체험을 한 정민지(7)양은 "예쁜 옷을 입어봐서 너무 즐거웠고, 빨주노초파남보 색깔로 사리를 다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몽골편에서는 게르아저씨가 출연, 몽고의 가장 큰 축제인 나담축제를 배경으

로 씨름, 말타기 등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중국편에서는 손오공과 삼장법사, 팬더를 등장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베트남편에서는 우리 동화 '콩쥐팥쥐'와 비슷한 '땀과 감' 이야기를 수상인형극으로 관람하고, 월남쌈 등 먹을거리도 나눠먹는다.

공연을 담당하는 아트 브리지 김영현 연출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모든 것을 체험해 보는 형식이라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한다"며 "특히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 아이들의 반응에 즉각각각 대응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문의 062-230-01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갤러리 가득 은은한 떡과 차향

이창호 개인전, 내달 16일까지 신양파크호텔 갤러리

무등산이 가까워서일까, 작품 속 은은한 차(茶) 향기가 갤러리를 가득 채워서 일까.

이창호씨가 다음달 16일까지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호텔 갤러리에서 여는 개인전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전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윽한 차 향기가 넘쳐나고 차와 함께 즐길만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차 마니아들이라면 한번쯤 둘러볼만한 전시로, 떡과 차향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대나무에 맺힌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모차(竹露茶) 달이는 법새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눈을 감으면 광활한 차밭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

이씨는 경남 창원 미술협회 소속으로 수많은 단체전·개인전을 통해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도단체총연합회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문의 062-228-80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허수영씨 대상

제1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상금 1000만원) 수상자로 서양화가 허수영(29·사진)씨가 선정됐다. 또 우수상(상금 200만원)은 사진작가 유목연(35)씨, 신진작가상(상금 200만원)은 서양화가 정현성(26)씨가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올해 미술제는 모두 89건의 전시 기획안이 접수됐고 김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유근택 성신여대 교수, 윤재갑 2011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일 오후 5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saton (국제보청기)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OFF SA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the website www.kjhr.com.

Advertisement for Geumsoo Hotel & Arirang House, celebrating 30 years. Features a large spread of traditional Korean food and offers for seminars and events. Contact: (062) 525-2111.